

## [지역대학 신설학과 릴레이 인터뷰]<4>이태정 계명문화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박종문 | 입력 2021-08-07 수정 2021-08-08 09:56

만 25세 이상 평생학습자 만학도 대상 모집...온라인 수업 활성화, 평일 야간수업으로 진행 예정"



대구 계명문화대 금융부동산과 이태정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학과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학과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대구경북지역 각 대학 신설학과의 교수를 만나 학과 신설 배경과 커리큘럼, 취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인터뷰 했다. 대구 계명문화대는 2022학년도에 부동산 및 금융 등 자산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금융부동산과를 신설했다. 이태정 금융부동산과 교수를 만나 학과 신설배경과 취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인터뷰 했다.

▶ 금융부동산과 소개를 부탁한다.

"100세 시대 행복한 부자 설계를 슬로건으로 내건 계명문화대 금융부동산과는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금융, 법학, 회계학, 조세 등 관련 교과목 통합 교육을 통해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학과 신설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버락거지라는 말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집 값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억원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나만 뒤쳐진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해 나만 빼고 다들 부를 축적한 것 같아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게 느껴져 급기야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와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거나 집을 산다는 '영끌'까지 해보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고 나만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더욱 불안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는 20대부터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또는 퇴직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윤택한 노후생활 돕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금융부동산과를 신설하게 됐다."

▶ 교과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나?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금융, 법학, 회계학, 조세 등 관련 교과목 통합 교육 구축을 통해 실무중심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이낸셜 플래닝(금융리스크 관리, 증권거래 실무 등 금융 실무)과 부동산 운영 및 관리(부동산 투자 및 경매 전략, 관련 법규 등 부동산 관리 실무), 종합자산관리(재무비율 분석, 상속 및 가업 승계 설계, 조세 등 자산 관리 실무)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 학과 특성이나 경쟁력은?

"이번에 신설된 금융부동산과는 만 25세 이상(1997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평생학습자 즉 전직 및 재취업, 창업 등 인생 이모작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만학도를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업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고 평일 야간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해 입학생 전원에게 수업료 50% 감면 혜택과 학업디딤돌 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하며, 학기중에는 성적 3.0이상을 유지할 경우 수업료 50%를 지속 감면한다."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수업료 100% 감면도 가능하다. 특히 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초빙해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와 함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AFP(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및 창업 또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동아리 및 스터디 그룹 활동을 활성화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산업체 견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졸업 후 진출분야는?

"금융부동산과를 졸업하면 부동산 관련 기업과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산관리 관련 기업 등에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및 금융 등 생애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자산은 물론이고 타인의 자산을 유용하게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들이 원하는 분야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프린트

취소